

“문화·안보 현장서 훈훈함 느껴”

포천문화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9일부터 11월말까지 5회에 걸쳐 216명을 대상으로 4코스 나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며, 오는 12월 9일 프로그램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국무총리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보육원생, 장애우, 불우청소년, 오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문화

관광 해설사의 안내 및 설명으로 소중한 문화재 및 조각공원, 철원안보관광지 등의 견학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체험 및 역사 의식 제고 등 뜻 깊고 유익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문화소의 계층임을 감안 참가자에 맞는 체험과 기념품, 식사를 제공하는 등 모처럼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문화원은 지난 9일부터 11월말까지 5회에 걸쳐 216명을 대상으로 4코스 나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청소년 열린 문화의 장 마련

청소년을 위한 꿈과 희망의 음악캠프

포천반월아트홀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부터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꿈과 희망의 음악캠프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긴장 완화 및 건전한 열린 문화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정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1부 테마공연과 2부 엔트럼, 슈가, 유지나, 일렉트릭 투지,

DI&은 비트박스, 익스프레스션 비보이 등이 출연하는 가수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연은 초등생이상 관람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6천원이다. 단 고3학생이 학생증을 제시하면 50% 할인해 준다.

문의는 반월아트홀(031-538-2938)이나 홈페이지(www.bwart.net)로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

포천국악협회, 제4회 국악한마당 공연

한국국악협회 포천지부(지부장 오세철)은 지난 19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4회 국악한마당을 개최했다. 한국국악협회 포천지부(이하 포천국악협회) 창립을 기념하고 국악을 통한 시민회합과 보급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국악인 및 관객 30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치러졌다.

김영오 포천국악협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신화(피리), 최태진(장고), 김옥선(해금) 씨의 반주와 더불어 ▶유태균, 이영재, 이민식, 박일용, 이상주, 김영오, 김성배, 이병진, 이종상, 김중현 등이 출연한 포천메나리 농요 ▶오세철, 오연경 씨와 안성근(고수) 씨의 풀리리 연주 ▶송창희, 용진주, 장운정 씨가 출연한 경기민요 ▶박민준, 조덕근, 김해진, 윤한엽 씨의 하눌소리 ▶김백곡, 김

순녀, 김정란 씨의 민요, 민속재담 ▶김경숙(가야금), 김은선(거문고), 남지인(대금), 최 진(해금), 김계희(생황·피리), 최경선(아쟁), 강보연(노래), 황규환·강준모(타악) 씨의 국악실내화 ▶박영실, 김동희, 고준자, 곽은석 씨의 경기소리 ▶김정옥 회장, 이남순 총무, 손혁준, 현익기, 함수미, 남옥승, 유정심, 이재순, 이영미, 이향심, 양태경, 하현실, 오미숙 씨의 가산사물놀이패의 사물놀이 ▶서고영, 고민희, 이선미, 김경진, 김고은, 권지혜 씨가 공연한 부채춤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 2001년 12월 8일 창립 행사를 갖고 출범한 포천국악협회는 현재 오세철 회장, 김영오 부회장, 이영재·유태균·박영실·송창희·정재운 이사과 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창작무용극 ‘천상병의 새’

12월14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이 시대 마지막 순수시인으로 불렸던 고 천상병 시인의 삶과 작품을 축으로 풀어낸 창작무용극 '새'의 한 장면.

아름다운 시와 영상, 몸짓이 어우러진 창작무용극으로 문단의 마지막 기인 천상병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작품 '새'가 오는 12월14일 오후7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의정부사무용단(단장 이머숙)이 문화관광부와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의욕적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포천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향수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무용극 '새'는 세속의 관행을 무시한 기이한 행동으로 한평생을 살았지만 이 세상, 우리세대 누구보다도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시인의 천진난만한 삶과 아름다운 시 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대와 다양한 영상, 그리고 몸짓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작가의 아름다운 심성을 충사위를 풀어냈는데 큰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이미숙 단장의 섬세한 안무와 대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유우영 교수의 치밀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작품은 프롤로그, 시인의 일상, 혼돈(동백림 사건), 날개 잃은 새, 바람의 길, 만남, 환희, 행복, 귀천 순으로 전개되며 대부분 의정부예술의전당 소흥상 기획홍보담당자의 작품이다.

이번 작품 입장권은 전석 5천원이며 10인 이상 단체는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공연문의는 포천반월아트홀(031-538-2938~40)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난 21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회 마홀문학회 시화전 및 마홀16집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詩畫에 담은 한쪽의 詩

마홀문학회 문학의 밤

마홀문학회(회장 손진홍)는 지난 21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한해동안 노력한 결과를 시화, 책, 낭송회를 통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원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문학인구의 자변확대를 위해 개최된 제1회 마홀문학회 시화전 및 마홀16집 출판기념회에는 황용선 부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의원, 최종규 포천시민단체총추진위원장 등 50여명의 회원 및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시낭송 및 다과로 진행됐다.

지난 21일부터 1회 25일까지 전시된 마홀문학회 시화전은 사진, 그림, 컴퓨터그래픽, 종이공

예, 서예 등이 회원들의 작품 50여 점과 어우러져 시화의 새로운 불거리를 제공했고, 마홀16집 출판기념회를 통해 회원간 문학적 소양 함양 및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손진홍 회장은 “이번 제1회 마홀문학회 시화전은 회원들의 피할어린 작품이 그림 및 사진, 각종 생활 용품 등과 어우러져 다양하고 신선한 불거리를 제공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바깥 문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속의 즐거운 문학 추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마홀문학회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031-534-2482(사무국장 강돈희)로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16

역사의 라이벌 최명길과 김상헌의 관계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1570년(선조3)~1652년(효종3)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정묘호란의 난국에서 주화론과 적화론으로 극명하게 대립했던 지천 최명길(遯川 崔鳴吉)과 청음 김상헌, 그들은 17세기 최대의 라이벌이었다.

모두 서인 계열로 처음엔 비슷한 길을 걸었다.

광해군 말기 최명길은 현실문제에 적극적인 양명학(陽明學)에 빠졌고 김상헌은 명분과 의리를 숭상하는 주자학(朱子學)에 몰두하면서 서서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조반정(仁祖反正)을 계기로 이들은 정치노선의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최명길은 반정에 참여해 공신 이 됐고 김상헌은 의리와 명분을 내세워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서인이 세력을 얻자 이들은 탈 없이 성장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정묘호란은 그들을 결정적으로 갈라놓게 된다. 최명길은 주화론, 김상헌은 적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절해고도라도 같았던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은 항복문서를 만들어 청군 진영을 오갈 무렵, 김상헌은 그 항복문서를 빼앗아 찢어버렸고 최명길은 그것을 주어서 다시 붙였다.

최명길은 갖은 모략과 위험 속에서도 전쟁 종식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놓았고 김상헌은 대의명분이 무너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신념으로 임금 앞에 엎드려 6일동안 단식을 하면서 목숨을 내 놓았다. 당시 최명길은 예조판서, 김상헌은 이조판서였다. 지리한 전쟁이 끝나고 인동으로 낙향한 김상헌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최명길은 서울로 돌아와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최명길은 전후 처리를 위해 청나라에 드나들었고 김상헌은 적화파였다는

이유로 청나라 심암에 잡혀갔다. 그러나 얼마 후 최명길도 청나라 복수계획을 꾸민다해서 역시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역사의 라이벌, 그들은 차가운 이역 땅에서 포로의 몸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이 만남은 그들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명길은 죽을 앞에서도 당당한 김상헌의 의연함에 탄복했고, 김상헌도 최명길의 주화론이 정쟁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김상헌은 “두 세대의 좋은 우정을 찾고/ 백년묵은 의심이 풀리도다”라고 읊었고 최명길도 “그대 마음 돌 같아 끝내 돌리기 어렵고/나의 도는 고리 같아 때에 따라 들고 도는 구나”라며 김상헌의 절의를 칭송했다. 또한 최명길의 아들은 재물을 갖고 심암에 들어가 아버지를 위해 쓰러서 아물러 김상헌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고 한다. 최명길과 김상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사이로 변해간 것이다.

드디어 이들이 풀려나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올 때 청나라는 두 사람에게 청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하라고 강요했다. 최명길은 서슴없이 절을 했고 김상헌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절을 하지 않았다. 서로 화해 했지만 변하지 않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 이들은 귀국 후 모두 재상이 되어 조국을 위해 일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각기 명망이 달라졌다. 최명길의 후손들은 소론이 되어 정치적 힘을 상실한 채 강화도에서 양명학파를 형성, 의로운 길을 갔다. 반면 김상헌의 후손은 노론이 되어 세력을 잡고 훗날 안동김씨의 권세까지 누렸으니 이는 조선이 달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한 사회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상헌의 형 상용(尙容 우의정)은 병자호란때 왕자 비빈을 강화도에서 호위하다가 강화군 함락되자 순절하였고 상헌의 손자 수항(壽恒), 수증(壽增) 증손 창집(昌集)은 영의정으로서 의(義)를 지켜며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를 바치는 반대 당(소론)의 김일경 목호룡의 모함으로 삼대가 참화를 당하는 비극도 겪었다. 그러나 정의는 승리하는 것. 그 후 모함이 밝혀져 신원 되었다. 적선지기에 필유유경이라 하였다. 신하로서 최고의 영예인 종묘묘정(宗廟廟正) 공신 이 네 사람 효종묘정에 상헌 현종묘정에 수항 영조묘정에 창집 정조묘정에 조순(祖善)이 배향되었고 또한 일묘사충(一廟四忠)이 탄생하였는데 조선조 500년 통틀어 유일한 사례이다. 즉 국가에서 수항 창집 제계 성행 4대의 충절을 현창하여 명부조의 은전을 내린 것이다. 한사람의 불천위(不遷位)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거늘 처음 가문에는 직계로 4대가 불천위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조선조 말 안동김씨 70년 세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조 들의 후광일 것이다.

“우리 손으로 주민광장 조성해요”

선단동, 도자체험 한마당

포천시 선단동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선단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참여와 화합의 주민광장 조성 도자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동민들의 꿈과 소망을 그림이나 글씨를 도자기 타일에 표현, 매년 2월 준공예정인 선단동주민자치센터 주민광장 조성시 상징조형물에 부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도자체험 한마당은 주민 161명이 참가했다.

강병수 선단동장은 “이번 도자체험은 도자기 타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을 구워 주민들이 사용하게될 주민자치센터의 조형물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주민



선단동이 참여와 화합의 주민광장 조성 도자체험 한마당 행사를 마련한 가운데 동고동 주민들이 도자체험을 하고 있다.

들의 참여의식 고취 및 화합의 초 고 밝혔다. 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초대 漢詩

追慕 白砂 李恒福 先生

(추모 백사 이항복 선생)

先生學德顯吾東(선생학덕현오동)
선생의 학문과 덕행이 우리나라에서 뛰어나시고,
經世超倫平戰亂(경세초륜평전란)
세상을 다스리며 뛰어난이 전란을 평정하시고,
事君至諫千年鑑(사군지선천년감)
임금님을 모시는데 지극한 간언은 천년의 귀감이시고,
清白名聲傳後裔(청백명성전후예)
청백리의 명성이 후손에게 전해 내려가고,

偉績褒揚仰慕中(위적보양앙모중)
우리러 추모하는 가운데 위업을 찬양하도다,
濟民卓越起英風(제민초적기영풍)
백성을 구제하시니 탁월하시어 큰 덕회를 일으키셨다.
愛國誠忠萬代功(애국성충만대공)
애국하심에 있어서 충성은 만대의 공훈이시다.
嘉招頌典宴豐隆(가초승전연풍)
칭송 자리에 초청되니 백일장의 진치가 풍성하도다.



박 동 구 전 永北總高 校長 현 永北老人大學 學長

초대 詩

겨울날

아침...
별빛 시린속에서도
한오라기 출지 않은 겨울
초췌한 희망을
앞세우고 있다.
가지 끝에 열린 햇살
바람이 흔들지 않아도
힘겨운 호흡

누추한 가을 꽃술위로
분분히 흩어진다.
나른한, 시간의 어깨에
걸터 앉은 일상
젊은 날의 추억한 점 걸여놓고
마약 살점 흩어진 햇살 사이로
남루한 얼굴을 숨긴다.



조 순 정 슬모루문학회 편집위원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50)

포천의 ‘사냥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내 고향 포천은 임금님들의 사냥터이자 보병과 기마병(步兵·騎馬兵)들의 강무장(講武場·훈련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방산(王防山)’(737m), ‘해룡산(海龍山)’(661m), ‘심곡산(深谷山)’(529m), ‘보장산(寶藏山)’(585m) 등이 강무장인 훈련장이자 임금님들의 사냥터였다.

‘강무장(講武場)’이란 국가가 지정한 기병과 보병의 훈련장이자 임금님과 사냥터인데 임금님들(와, 상왕, 태상왕)이 함께 사냥하기도 하였다 한다.

따로 훈련장을 정하였던 바가 없었던 당시 조선조에는 사냥 자

체가 거꾸적인 육군의 기동훈련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냥터는 훈련장인 강무장이었으며 노루, 사슴, 멧돼지, 호랑이 등이 노획품이자 전리품으로 왕족들의 잔치 요리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종묘의 제수용품으로도 사용되었는가 하면 당상관들의 연회 석상의 하사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내고향 포천 현감(6품)이나 영평 현령(6품)은 물론 경기감사, 강원감사, 철원군수, 가평현감 등이 임금님을 비롯한 왕자, 종친, 일품 높은 벼슬자리의 고관대작들을 접대하고 말 먹이품을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다.

추운 겨울 사냥터에서 군사들이 얼어죽는가 하면 말들도 얼어죽고 비바람 우박을 맞아 큰 고생을 하였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가슴이 저머움을 느낀다. 내 고향 포천사람이나 영평사람들이 임금님의 사냥터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의 국무총리나 부총리, 장관급 고관들 수십명이 사냥터로 물러오면 전국 각지에서 징병된 군사들 수백 명이 불이붙어 버어 대항군으로 싸우고 임금님의 붉은 군복에다 청룡기를 휘날리면 화살을 피해 쫓기는 취도여 물이

하던 포천의 현감이하 관속들의 움추린 모습이 눈에 선하다.(시도 때도 없이 놀이터인 양 놀러왔던 사냥터였다)

사냥뿐만 아니라 사냥 후에는 ‘골동’, ‘매장원(每場院)’, ‘풍양원(豊陽院)’ 등에서 임금의 여가 유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포천의 왕방산 국사봉 기슭에는 아직도 멧돼지, 노루, 꿩 등이 많이 산짐승으로 살고 있다고 하며 보장산 등도 그 유서 깊은 영봉을 자랑하고 있다.

제주도나 각 도의 현대적 사냥터(수렵장)가 외화획득이나 고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내 고향 포천에도 폴프장이 좋지만 공인 수렵장을 만들어 옛날 임금님들의 이름났던 수렵장의 전통을 이어보면 어떨까?

※정경합니다.
본란 148호 ‘비(飛)자 이야기’ 중 ‘비상천(非上天)’을 ‘비상천(飛上天)’으로 정정합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